

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민관협의체('19.7월~)에서 논의 중이며,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.

<언론 보도내용 >

- 뉴스1은 4.24일 「'게임질병코드' 도입되나...업계 "뇌관 터질라" 불안감↑」이라는 기사에서
 - “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형 표준분류는 세계보건기구(WHO) 분류를 따라야 한다” 라고 보도

< 통계청 입장 >

- 통계법 제22조 ①항은 “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, 직업, 질병·사인(死因)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·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되,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,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'19.7월부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,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현정 (042-481-206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여진 (042-481-2204) |